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22, 페르시아 제국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22,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럼,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음 테이프 부분에 있다는 의미에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 부분은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키루스는 페르시아 왕이 되었을 때 메디아 왕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이 두각을 나타냈을 때 메대 지파는 다섯 지파 중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고레스는 만능의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Astyages의 부하였습니다. 사실, 키루스는 매우 재능이 있었고 상층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아스티아게스는 그를 그의 수도인 엑바타나에 와서 그 앞에 나타나도록 불렀습니다. 그래서 키루스는 오기를 거부했고, 아스티아게스는 안산에 있는 그의 수도로 키루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것은 키루스의 삶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활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스티아게스의 군대가 그에 맞서 일어나 그를 붙잡아 키루스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키루스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의 전형적인 경향입니다. 559년 키루스가 권력을 잡았을 때 세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고 초강대국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지배하는 바빌론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북쪽과 동쪽에서 바빌론을 에워싸는 거대한 원호를 통제하는 메디아가 뒤따랐습니다. 리디아는 아나톨리아의 서쪽 해안 부분이 될 아나톨리아 고원의

나머지 부분을 통제했습니다. 남서쪽의 강대국은 이집트였지만, 이집트는 늪은 사자와 같아서 약한 적을 죽일 수는 있지만 강한 적에게는 무해하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키루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세계 지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키루스는 먼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대도시들을 교묘하게 통합하여 엑바타나를 자신의 이익의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좌절감을 느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페르시아어 비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 우리가 페르시아어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서는 산벽에 있는 유명한 베히스 툰 비문(Behistun Inscrip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백 년 동안 통치하고 200여 년 동안 세계 역사상 주도적인 세력을 유지했던 일단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말할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 자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중에게 페르시아 관점에서 본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0년을 볼 때 성경의 정보가 없으면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인공적인 정보, 도자기 분석, 유적지 층위학 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우 갖고 싶어하는 페르시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책이 진정한 전문가가 아닌 한, 거의 모든 책이 그리스 관점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페르시아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면에서는 잠시 멈춰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완전히 왜곡된 관점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항상 그리스인의 관점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페르시아 역사적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 자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나의 불일치는 더 직관적입니다. 나는 채울 정보 없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요점을 확인한 후 사이러스는 두 부족을 통합한 다음 어느 시점에서 군사 경력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쪽의 강대국인 리디아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리디아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 신바빌로니아 시대로 돌아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리디아 왕국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서부와 북부로 구성된 이 녹지가 보이시나요? 그것은 위대한 리디아 왕국이었고 이것이 일련의 사건인지는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 키루스는 리디아를 정복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리디아와 아나톨리아의 경계는 할라스 강이었기 때문에 키루스는 크로이소스 왕에게 공격을 받고 격퇴당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크로이소스는 할라스 서쪽으로 물러났고 키루스도 같은 일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겨울에 아나톨리아 고원에 갇히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났고 키루스도 똑같이하기를 기대했지만 키루스는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를 점령하여 그를 놀라게 했고, 그는 즉시 새로운 총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satrapy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입니다. 페르시아어인데, 일종의 정치적 경계나 정체성, 미국의 주나 그와 비슷한 것, 독립 국가 등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리디아를 지배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상공의 방주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보가 완전히 부족하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제 문장을 살펴보세요. 리디아 원정 전후에 그는 관심을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는 키루스가 리디아 이전이나 이후에 동부를 공격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바꾸어 인더스 강까지 동쪽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이 옳다. 여기 인더스 강 유역부터 에게해 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복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재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키루스의 극적인 정복이 세계 역사상 이 시점까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보니두스와 맞섰던 거대한 돌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고레스를 그들의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 성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말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성경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언급된 단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사야는 그를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물론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인 히스기야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사야가 두 명 있었다고 말하는 이사야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한 이사야를 두고 학자들은 제2이사야, 40장부터 56장까지를 기록한 이사야를 언급하며, 많은 비평학자들은 56장부터 66장까지 기록한 제3이사야를 삼위일체 이사야라고 부른다. 66. 그러므로 이사야를 유일한 저자로 간주하는 우리는 고레스가 알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예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성서학자의 관점에서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 쓴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리라 하느니라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이 건축될 것이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잃게 하고 그 앞에 문을 열어서 성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리라.

내가 낯문을 부수고 그들의 쇠빛장을 꺾으리니 내가 네게 흑암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부를 주어 네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자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벳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이것은 아직 수 세기가 지나지 않은 왕에 대한 전례 없는 놀라운 언급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판적인 친구들이 이것이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2세기 후에 다른 작가의 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의 그림은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고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그림은 한결같이 긍정적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그림과 일치하는 페르시아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관점이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광채와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으며 알렉산더처럼 결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아마도 무엇보다도 그의 성공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키루스가 최초의 인도주의자임을 시사합니다.

키루스 원통은 최초의 인도주의 왕, 인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합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최초의 왕의 예로 유엔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키루스의 이러한 정책은 정확하다면 그를 세계 최초의 인도주의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테이프가 있으므로 꼭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임자들과 달리 키루스는 지역 종교의 복지를 장려했습니다. 즉,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 정도는 덜하지만 아시리아 사람들과는 반대로 키루스는 지역 종교를 장려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페르시아인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3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종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세계의 종교 숭배에 더 개방적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지역 종교를 장려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둘째, 키루스는 정복한 적들에게 정기적으로 관대함을 보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있던 여러분, 우리는 아시리아의 행위에 대한 생생하고, 역겹고, 소름끼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사이러스가 진자의 반대편에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정복한 적들에게 정기적으로 관대함을 보여서 키루스가 그를 패배시킨 후에도 백악기가 자신의 나라에서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관대함은 확실히 키루스가 정복한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관대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된 세력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했습니다.

즉, 그들이 페르시아인들에게 기꺼이 충성하는 한, 그는 그들에게 자치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대함과 자율성 사이에서 페르시아 왕의 이 두 가지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제안했든 간에 페르시아인들과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반대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은 사이러스 시대의 국제 세계에 다른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셋째, 키루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이들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즉, 그는 사람을 정복하는 인도주의적 세계를 구상한 것이다.

아시리아인들이 450만 명 정도를 추방했다고 내가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 내가 본 어떤 통계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총 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글썄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 접붙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이러스가 원하면 고국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빌론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키루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법령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마지막으로 사이러스는 세계 최초의 효과적인 백인 선전가였습니다. 좋아, 요즘 세상에서 내가 백인 선전가라고 말하면 마치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선전가들이 선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형용사에 대해 숙고하는 것입니다. 백색 선전은 양성적이고 긍정적인 선전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Black Propaganda는 끔찍하고 부정적인 선전에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리아인들은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흑인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루스는 백인 선전의 가치, 즉 자신을 진정한 정복자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자로 제시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문학을 올바르게 읽었다면, 혹은 그리스인들이 올바르게 썼다면, 키루스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도주의자, 최초의 자유주의자, 종교의 자유를 최초로 생각한 사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람인 키루스는 고대의 가장 독특한 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사진이 정확한지 아닌지입니다. 키루스가 제시한 그림은 그리스인들이 집어들었고, 그리스인들이 그것을 페르시아에 대한 역선전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키루스를 인도주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편리했다.

접근 방식에서 보다 고전적인 광적인 민족주의 접근 방식으로 극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실제보다는 이상적인 방식으로 키루스를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난 가을에 어떤 중요한 학자가 쓴 기사를 읽었는데, 그는 사이러스가 실제로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정형화된 언어를 사용했으며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알겠어요? 나는 성경의 그림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성경이 그를 하나님의 목자로 묘사하고 긍정적인 용어로 묘사한다면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Cyrus와 Ashurnasirpal보다 왕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이러스는 코카서스 지역에서 마사게티 와 싸우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사에게 딱 맞는 최후였습니다. 알렉산더의 결말이 생각나서 적절한 결말이라고 하더군요. 알렉산더는 바빌론의 한 침대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러진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방탕한 삶이 그의 몸을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사이러스는 전사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그는 권력의 영향을 면하고 무명의 산악 부족에 맞서 군대를 이끌며 죽는 것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군대는 그의 시신을 코카서스에서 이란 고원까지 운반했으며, 그의 기념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시체는 사라졌고, 부장품도 사라졌지만, 기념비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인간 중 한 사람에 대한 조용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증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페이지를 볼 때 키루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거칠고 잔인하며 탐욕스러운 힘이 아닌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빛나는 빛으로 눈에 띕니다. 키루스 대왕의 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 나는 그에 관해 기록된 모든 역사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분석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단지 과장하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성적인 과장자였으며, 페르시아인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은 그들의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히 왜곡된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Cambyses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캄비세스는 이집트 침공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5년차에 그는 이집트를 침공했고 즉시 왕과 멤피스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집트인을 고용한 그리스 장군의 탈복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으며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인에게 고용된 그리스 장군이 캄비세스로 탈북하여 이집트의 방어를 폭로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에 따르면 처음에 키루스의 정책은 그의 아버지의 정책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인들에게 신을 주어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고, 이집트인에게 나라의 행정을 맡겼으며, 이집트인들의 이익을 위해 개혁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인들이 Cambyses를 미친 사람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멈추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ambyses는 서쪽으로 제국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들이 서쪽에서 정복하려고 했던 첫 번째 독립체는 리비아, 음, 이집트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리스인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 서쪽으로 올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여기 서쪽으로 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캄비세스를 키루스처럼 해방자가 아니라 적으로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에티오피아를 정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에티오피아는 남쪽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지도에서 이집트 바로 남쪽 지역은 수단이고, 수단에서 남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지역은 에티오피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에티오피아가 이집트 바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남부를 침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Cambyses가 미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가 남침한 이유에 대해 그럴듯하게 대답할 수 있다.

그가 남쪽을 침략한 이유는 이집트의 모든 금 공급이 남쪽, 즉 누비아라고도 불리는 에티오피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캄비세스가 금 매장지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남쪽을 침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는 남쪽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최초의 이집트 파라오가 아니었습니다.

나일 강을 건너 에티오피아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이러한 사건을 묘사하는 그리스 전통에서 그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신성한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그리스 역사가였습니다.

이제, 신성한 질병은 자매들과 결혼한 고대의 많은 왕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대 주민들의 관찰이었습니다. 왕이 자매들과 결혼하여 왕으로서의 이중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외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반대의 위협을 줄이는 가족 내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현대 유전학 연구로 인해 생물학적 혈통 내에서 결혼하면 유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대인들은 다른 모든 일을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어떻게든 신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신성한 질병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캄비세스의 문제라고 이해한 것을 그가 미쳤기 때문에 비난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근친상간 결합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캄비세스를 싫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준 웅장한 제국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는 멤피스에서 신성한 황소인 아피스(Apis)를 죽였으며, 그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록산느(Roxanne)를 죽이는 등 다른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전통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Cambyses에 관한 이러한 전통은 조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의 군사적 시도는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거대한 전략 계획의 일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남쪽의 에티오피아를 정복함으로써 금 공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을 정복함으로써 그는 사실상 전 세계를 페르시아의 힘 아래 통합하려는 계획을 구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군대를 서쪽으로 진군시킨다. 그들은 서부의 일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럴듯하다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가 북아프리카 전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군대를 이동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럴듯합니다. 결국 이곳에는 카르타고라는 형태로 강력한 정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정신 이상과는 별개로 아주 좋은 이유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럴듯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면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인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자동적으로 의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가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본문은 그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알려줍니다. 첫째, 에티오피아에서 패했다, 혹은 에티오피아에서 실패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다가 서쪽으로는 실패했다. 그는 군대를 서쪽의 사하라 사막으로 진군시켰는데, 그곳에서 5만 명의 군대가 끔찍한 사막 폭풍에 전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왜 군대를 진군시켰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시바(Siva)라고 불리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도록 군대를 서쪽으로 진군시켰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바(Siva)는 이집트 파라오가 다음 아문레이(Amun-Rei) 신으로 환생하기 위해 갔던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신격화되기 위해 그의 군대를 시바(Siva)로 진군시켰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키레니아, 즉 리비아를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진군시켰다는 것이 더 나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그는 자신의 광기 때문에 군대를 사막으로 진군시켰습니다. 비극적으로 군대는 파괴되었습니다.

이 군대는 2,50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어쩌면 삼십 년 사이, 시간이 흐른 후 실제로 이 군대의 잔재가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캄비세스는 자신의 주요한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발자취를 되돌려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혼란의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Cambyses는 페르시아로 돌아 가기 시작하지만 그의 형제 Smerdis , Bardiya 가 그의 형제가 없을 때 자신을 페르시아의 왕으로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좌를 확보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캄비세스가 왕좌에 오른 것이 아주 새로운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할 역사적 전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형이 스스로 왕위를 찬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캄비세스는 실수로 자신의 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이것은 나에게 매우 믿기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광기 속에서 우연히 자신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으며 자해 칼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를 초래했습니다. 스메르디스(Smerdis) 라는 이름을 가진 캄비세스의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

한 사람은 캄비세스가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에 그를 죽였으나 그의 죽음을 비밀에 부쳤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이름이 Gaumata인 가짜 스메르디스가 Cambyses의 형제인 Smerdis를 죽인 후 자신이 진짜 스메르디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 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 문학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의 진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이었습니. 캄비세스는 죽었다.

스메르디스 아니면 가짜 스메르디스가 페르시아의 왕좌에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완전히 기괴한 행동의 결과로 세계는 전략적이고 긴장되는 사건에 돌입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왕좌를 위한 전투이며, 이는 우연히 우리를 페르시아인들에게 다리우스라는 인물로 인도합니다. 다리우스는 키루스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지만 아케메네스 왕조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인 키루스는 자신을 위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약 4개월 만에 그는 가짜 스메르디스를 물리치고 죽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스메르디스가 아닌 이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는 9명의 왕을 물리치고 23개의 총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아카드어, 엘람어, 고대 페르시아어로 쓰여진 유명한 베히스 툰 비문(Behistun Inscription)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 가능한 몇 안 되는 페르시아 역사 문서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크기에서도 유일한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어와 인도유럽어의 유사점을 통해 해독하여 아카드어를 읽을 수 있는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준 조지 로리슨 (George Rawlison)에 의해 해독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고 다리우스는 결국 그리스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의 이 전쟁 사건은 거의 한 세기 동안 페르시아 역사를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문서는 그리스 관점의 문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다리우스를 군사적 약탈자로 묘사했지만, 사실 페르시아가 서방에 간섭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설명이 가능했는데, 이는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을 불안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에 있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오니아 도시 국가들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이 무렵에는 서해안을 따라 있는 이 지역 전체에 순회 그리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리스어가 이 지역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인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보다 낮은 존재로 보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오니아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의 그리스인들은 이오니아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리우스가 서방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Cambyses의 원래 계획은 아마도 더 나은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는 해군이 없었습니다.

더 나은 계획은 캄비세스가 했던 일, 즉 북아프리카를 따라 행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페르시아 문제에 대한 그리스의 간섭 때문에 다리우스는 침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는 도시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역의 이름일 필요는 없지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리우스가 그리스의 간섭 때문에 침략한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곳에는 어렵고 아마도 값비싼 그리스 침공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의 군대는 헬레스폰트를 건너 트라차 지역으로 진입하고 그곳에서 이오니아 도시들을 진압하고 몇몇 그리스 도시와 함께 트라차와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 고용된 해군인 키프로스를 통해 초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련의 패배가 시작됩니다. 저는 유신론자이기 때문에 즉, 신이 역사의 사건을 통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신의 손이 역사의 패배를 준비하기 위해 사건을 조율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 이 아주 작은 정치적 실체에 맞서는 초강대국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든 그리스인이 결국 승리할 수도 있고, 아마도 페르시아인이 결국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은 마치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다윗과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날 것 같은 재앙은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토스 산 근처에서 맹렬한 폭풍으로 인해 페르시아 함대의 일부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라톤에서 다리우스 군대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그리스군은 크게 패배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군사적 결과를 가져오면서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방식으로 그리스인들은 수십만 명의 군대로 구성된 마라톤 대회의 페르시아 군대를 상상하면서 과장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군대는 고작 몇 백, 어쩌면 25,000명에 불과했고, 그들은 약 11,000명의 그리스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최초의 진정한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것은 바로 이 마라톤 전투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지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번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인들을 우리 민주주의의 조상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워싱턴 DC에는 그리스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리버티 대학교 캠퍼스에는 많은 건물이 이오니아식 기둥이 있습니다. 순전히 의식용이지만 그것들은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승리를 증거합니다. 그리스 모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인을 영웅으로 보고, 페르시아인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역사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관점에 맞서 싸우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폭정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아직 민주주의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두 정치와 같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제로 투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부자여야 하고, 땅의 소유자여야 하고, x명의 전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부유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면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거의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퇴폐적인 동양에 대한 서양의 승리로 묘사하는 경향에 맞서 싸우고 그리스인은 좋은 사람이고 페르시아인은 변태라는 개념에 맞서 싸울 것을 권장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제시되며, 내 판단으로는 그것은 정말 나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 신학교를 위한 새 학교를 짓는 중이어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다 집에 있어서 이 책을 접할 수는 없지만, 교실에서 가르칠 때 책을 가져와서 표지를 읽는 책 이에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표지에는 신으로서 타락한 천사들과 벌이는 마라톤 전투, 아시다시피 흑인과 백인, 선과 악의 싸움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입니다. 좋은 놈과 나쁜 놈의 싸움이 아니다. 확실히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를 서부라고 불리는 것과 동양이라고 불리는 것 사이의 전투로 이끄는 두 구조적 힘 사이의 전투입니다.

이전에도 전투의 지형은 내 펜의 아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중동에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 마라톤에서 동서양의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 전투의 승자는 세계 패권을 중동에서 서방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서양 전통이 중동 세계가 아닌 그리스-로마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그것이 중동 세계가 나쁘거나, 부패하거나, 퇴폐적이거나, 변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서양의 우리 문화는 그리스-로마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 대항하는 이러한 구조적 힘의 첫 번째 전투가 마라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페르시아에 대한 그리스 군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작품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발견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몇 배 더 컸습니다.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결이 아니더라도 극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드라마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순간의 드라마는 극적이다.

페르시아인들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제 약 25,000명의 그들의 군대는 그리스 외부에 집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군대를 세 개의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인들이 여기에 줄을 섰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관점을 비웃고 페르시아인을 나쁜 놈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를 닦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여기에 줄을 섰고,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인상적인 전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이 페르시아 군대가 중앙에 맞서 성공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군인들이 훨씬 더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도시 국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톤을 강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군사 후퇴의 중심인 중심이 있습니다.

글쎄요, 군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중심을 잃으면 군대가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는 이렇게 후퇴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인들이 하는 일은 양쪽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군대를 포위합니다. 이제 이곳으로 이동한 중심이 버티고 페르시아군 전체가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전멸되었습니다. 글썄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좋은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그리스인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투에 대해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가 전투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군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투가 시작되면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통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군대는 잘 훈련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실제로 전투의 혼란 속에서도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인들이 전혀 갖지 못했던 엄청난 이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인들의 높은 훈련과 그리스 군인 훈련의 엄청난 성공은 그들에게 페르시아인보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군사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마라톤은 페르시아인들에게 당혹스러운 손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그리스 무기와 함께 페르시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수한 군대를 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매우 긴 군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사용하는 매우 긴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그리스 대형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긴 창을 가지고 있었고, 페르시아 군인이 합류하기 전에 페르시아 군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그들과 맞서십시오. 그래서 그리스 군인의 우월한 무기와 기동성을 호플리테스(hoplite)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무기는 페르시아인들에게 끔찍한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는 그리스인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친구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는 기껏해야 25,000명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약 6,40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페르시아 크기의 제국에서 6,400명의 병력을 잃은 것은 결과적인 것이 아니므로 마라톤은 역사상 서사시적인 전투 중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것은 단지 평균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정말 당황스러운 패배를 겪었습니다. 마라톤은 그리스인과의 전쟁에서 페르시아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이 고대 세계, 특히 페르시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군대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런 종류의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스인들이 세계에 보여줄 것은 그들의 군대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는 그리스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들 모두를 이길 수는 없지만 대부분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시 멈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다리우스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모든 페르시아 왕 중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사람인 다리우스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22, 페르시아 제국입니다.